

‘굿파머스’ 일본 탐방 소감문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한상철

이번 탐방은 다양한 농축산 분야의 방식을 보고 느끼며 이를 북한 지역에 적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농축산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공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시설을 방문을 하거나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탐방을 통해 일본의 농업 관련 시설 및 스마트팜 농장을 직접 가봄으로써 농업이란 분야에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었고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매번 토론을 하는 탐방 일정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생각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지역의 특수성 및 적용 가능성을 항상 신경을 쓰며 일본의 농업 관련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기후, 토양 등 농업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성공한 방안이 북한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친환경 퇴비 공장을 견학하면서 든 의문은 ‘과연 이 시설이 북한 지역에 갔을 때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비옥하지 못한 토양에서 기초 작물조차 제대로 재배하고 있지 못한 북한에서 과연 유기농, 친환경 등의 채소들이 성공적으로 재배 및 유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일본은 토양이 비교적 비옥하기 때문에 돈분 20% 초목 80%의 비율로 퇴비를 만들어도 되지만 비옥하지 못한 북한의 토지에서는 돈분 및 초목의 비율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분들 및 선생님들과 관련 내용을 토론을 했을 때는 북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서 유리한 작물을 찾고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탐방 및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농업과 북한 지역 특성을 모두 몰랐던 과거에 비해 농업과 북한 그리고 이 둘을 접목시켜 북한 내의 농업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이 농업을 직접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선진 농업 기술은 더욱 힘듭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책상 앞에서만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닌 발로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지며 북한 관련 농업을 경험해볼 수 있었던 이번 탐방은 보다 다방면적으로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